

# 나무의 대화

## #0 프롤로그 / 나무 / 낮

음악 '나무의 대화-잠비나이' 가 프롤로그부터 엔딩까지 흐른다.

이어지는 컷과 함께 음악이 시작되고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들린다. (00:00~)

천천히 틸트 다운 되고 있는 숲 속 굵은 기둥의 한 나무.

나무의 넓게 퍼진 가지부터 굵은 기둥을 지나 뿌리까지 천천히 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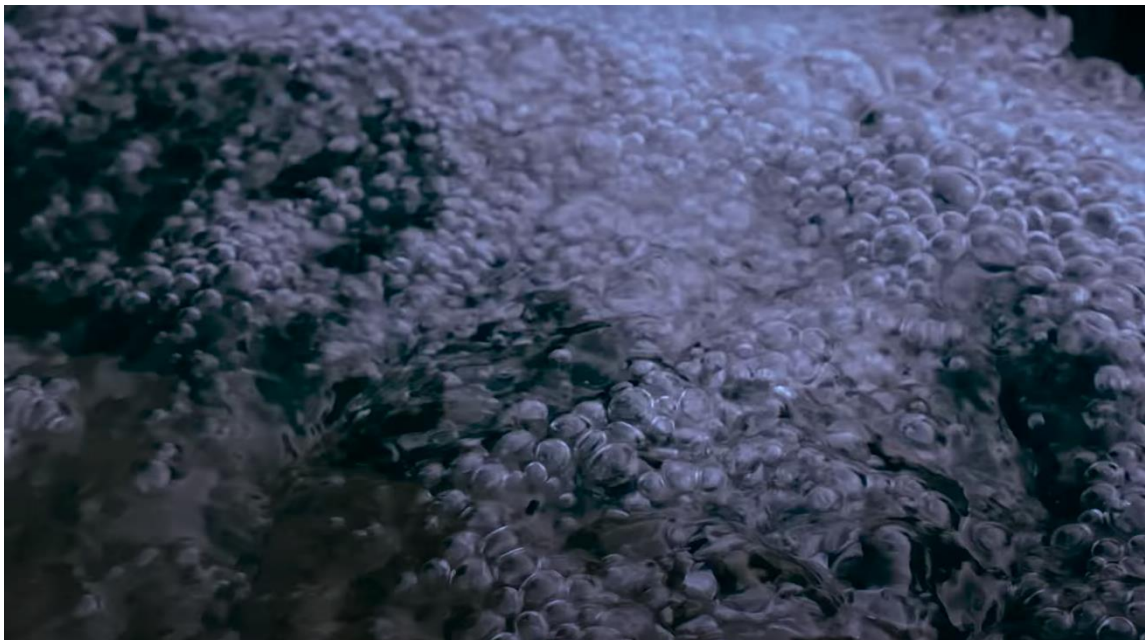
뿌리는 여러 겹 얽혀 있고, 그 중 가장 굵은 두 뿌리 모양이 마치 사람의 두 다리가 벌어져 있는 형상이다.

<insert>

클로즈업된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틸트 다운되는 나무의 컷이 30 초정도 진행되는 동안 인서트 컷(물의 이미지)이 5 번 정도 등장한다.

컷의 후반으로 갈 수록 그 간격이 더 좁게 등장하며 마지막은 고조되는 물소리와 함께 화면이 암전 된다.



물의 이미지 레퍼런스

## #1 숲 속 1 / 밤

로우앵글로 잡은 숲 속 나무들.

나무의 상단 그물망 같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밤하늘이 보인다.

숲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정면에서 잡은 남자의 모습.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있다.

떨고 있는 남자의 얼굴.

그는 불안에 휩싸인 표정이며 숨을 헐떡이느라 입에서 입김이 마구 나오고 있다.

그는 숲 속을 계속 헤쳐 나가더니 정면에 무언가를 발견하곤 갑자기 자리에 멈추어 선다.

남자의 시점 쇼트. 숲 속 저 멀리 윤곽이 희미한 작은 흰색 빛이 보인다.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천천히 나아가는 남자의 뒷모습.

다시 남자의 시점 쇼트. 희미한 작은 불빛이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더 어두워졌다.

터벅터벅 몇 걸음 더 나아가는 남자의 옆모습.

남자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다가 자리에 멈춰 선다.

다시 정면에서 잡은 남자의 모습.

빛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얼굴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표정에 가까워진다.

그는 잠시 서있다가 앞으로 고꾸라져 쓰러진다.

흙바닥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채 파묻히지 않은 한 쪽 눈으로 정면의 빛을 응시한다.

남자의 시점 쇼트. 희미하게 사라지는 빛.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몸을 뒤집어 하늘을 바라본다.

클로즈업된 흠바닥 위 남자의 손.

흠의 감촉을 느끼려는 듯 손으로 흠(낙엽)을 어루만진다.

그의 손가락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듯 흠(낙엽)을 파고든다.

*음악의 초반부 기타와 실로폰의 구슬픈 멜로디. (02:40~)*

누워있는 남자의 옆모습과 그의 얼굴 위로 보이는 그의 뿌연 입김.

그의 호흡이 점점 느려짐에 따라 입김이 점점 느려지고, 숨소리도 느려진다.

*음악도 그에 맞추어 실로폰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진다.*

그의 호흡이 가장 느려졌을 때 현장음이 뮤트되고 *음악의 실로폰 소리만 남는다.*

그의 마지막 숨결.

잠시 음악이 끊기고 다시 숲 소리가 들리며 이어지는 컷.

로우앵글로 잡은 나무들의 전경과 그 위로 보이는 밤하늘.

마치 나무들이 군중처럼 모여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다.

정적과 함께 화면이 5 초 정도 암전 된 후 #2 가 시작한다.

## **#2 숲 속 2(여인의 거처) / 아침**

*음악의 피리 소리와 함께 #2 시작. (03:30~)*

날이 밝은 숲 속, 나뭇가지들 사이로 햇별이 내리 쬐고 있다.

쏟아지고 있는 햇별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

그녀는 마치 기지개를 펴 듯 두 손을 들어올린다. 그녀의 두 손이 마치 공기와 햇살의 흐름을 읽는 듯 느리고 우아하다.

그대로 이어서 여인이 느리고 우아하게 손을 휘저으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레퍼런스-조커 화장실 춤 장면)

이어지는 숲 속의 이미지들. 모두 천천히 달리 인 되고있다.

(자연의 순리를 보여줄 수 있는 숲의 동적 이미지들)

흐르는 시냇물 표면 위로 떨어지고 있는 낙엽들.

바람에 휘날리는 흙과 자갈.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찍을 수 있다면...)

솜털 같은 꽃가루(ex. 민들레씨)가 흙 바닥 위로 흩뿌려 짐.

사람 얼굴 형상의 열매.



열매 레퍼런스

### #3 숲 속 1 / 아침

*음악에 여성 목소리가 등장할 때 #3 시작. (05:00~)*

숲 속 죽어 있는 남자의 신체 부위들.

### #4 나무 숲 / 아침

클로즈업된 나무의 표면.

나무 표면이 굽히고 패인 자국으로 사람 얼굴 형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다른 나무 4 개.



*얼굴 형상 나무의 표면 예시*

우거진 나무 숲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  
그녀가 울창한 나무들을 향해 아침을 깨우듯 손을 들어 지휘하는 듯한 손짓을 한다.  
클로즈업된 하늘을 향해 있는 그녀의 손.  
손가락에 미묘하고 느린 움직임이 있다.

## **#5 나무 숲 / 아침**

숲 속의 나무들과 인사를 하듯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숲을 거니는 그녀.  
계속 나무들 사이를 거닐다 자리에 멈춰 선다.

여인이 한 나무와 교감을 하듯 두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다가 끌어 안는다.

나무들의 수직 선들 사이 홀로 서 있는 여인과 숲의 전경을 통솔으로 잡는다.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눈을 감고 있으며 바람이 그녀를 스쳐 그녀의 머리 곁이 가볍게 휘날린다.



*나무들의 수직선들 구도 예시*

## #6 숲 속 1 / 나무 숲 / 낮

### <숲 속 1>

흙바닥 위 하늘을 향해 눈을 뜬 채 죽은 남자.  
부감 쇼트이며 이어지는 컷이 천천히 페이드 인한다.

### <나무 숲>

페이드인하는 클로즈업된 여인의 두 손.  
두 손은 모아져 있으며 두 손바닥 위 흙이 한 줌 있고, 그 위로 씨앗이 몇 개 올려져있다.  
이전 컷에서 서서히 페이드인 하기 때문에 손바닥의 흙 위 누워있는 남자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녀는 씨앗을 땅에 묻고 그 위로 흙을 덮는다.  
여인이 흙 위에 손을 얹으면 잠시 뒤 땅에서 물이 조금씩 솟아 여인의 손마디 사이로 물이 흐른다.

클로즈업 된 바위 위 표면.  
그 위 흙과 이끼가 부분적으로 있으며 그 위로 새싹이 돋아 나있다.  
바위 뒤로 여인이 마치 거인처럼 새싹을 바라보고 있다.

## #7 숲속 1 / 낮.

여인이 남자에게 슬며시 다가온다.

그녀는 몸을 낮추어 무릎을 꿇은 뒤 남자의 목뒤를 감싸 안으며 남자의 상체를 자신의 무릎에 올린다. (피에타가 연상되는 자세)

혈색이 빠져 새하얗게 질린 남자의 얼굴.

눈과 입을 벌리고 있으며 얼굴에 흠이 묻어있다.

여인이 남자의 얼굴의 흠을 닦아준 뒤 두 눈을 감겨준다.

여인은 마치 아이를 재우듯 중얼거리며 남자를 토닥인다.

## #8 숲속 2 / 낮

*음악의 중반부, 타악기 소리가 빠지며 음악이 차분해질 때 #7 시작. (07:13~)*

여인이 남자를 옆고 어딘가로 걸어간다.

여인의 어깨 위 고개를 떨군 남자의 얼굴.

롱숏으로 잡은 여인이 남자를 옆고 가는 모습.

## #9 나무 / 물속(교차) / 낮

*음악의 후반부, 타악기 소리가 등장하며 음악이 고조될 때 #8 시작. (08:20~)*

프롤로그에서의 나무.

나무 하단 두 다리처럼 보이는 굵은 두 뿌리 사이에 남자가 나무에 등을 기대어 누워있고 그 앞에 여인이 서있다.



여인이 나무를 중심으로 돌며 나무를 쓰다듬다가 나무에 머리를 맞댄다.

그녀가 한 팔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펼쳐 남자의 머리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린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든다.

로우 앵글로 잡은 나무.

바스트샷으로 잡은 여인의 뒷모습.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여 머리 곁이 조금씩 휘날린다.

땅에 엷혀진 남자의 손. 그 밑으로 약간의 물이 보이기 시작하며 남자의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흐른다.

바닥에 휘날리는 낙엽들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컷.

나무의 표면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채 위에서 아래로 훑는 컷.

나무 위 로 날아다니는 새 무리.

다시 여인의 뒷모습. 머리 곁이 더 크게 휘날리고 있다.

<insert>

프롤로그에서와 동일한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  
클로즈업된 남자의 손목. 손목 위로 나무 덩굴이 감싸져 땅과 이어져 있다.

다시 나무의 표면을 훑는 컷.

이번엔 물 줄기가 조금씩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무와 기대어 있는 남자의 머리. 나무에서 흐르고 있는 가느다란 몇 개의 물줄기가 머리 위로 살며시 흐른다.

다시 덩굴로 감싸진 남자의 손

<insert>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

나무에 기대어 있는 남자의 모습. 복부와 다리 손 등 신체 몇몇 일부가 땅 또는 나무에서 시작한 나무 덩굴에 감싸져 있다.

다시 머리가 휘날리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

나무에 기대어 있는 남자의 머리 위에 올려 둔 여인의 손. 나무에서 흐르고 있는 물줄기로 여인의 손과 남자의 머리가 조금씩 젖어간다.

클로즈업된 여인의 얼굴.

로우앵글로 잡은 나무.

<insert>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남자의 얼굴.

남자의 가슴 쪽까지 올라온 나무 덩굴.

나무의 표면을 훑는 컷.

클로즈업된 여인의 얼굴.

카메라가 미세하게 진동한다.

나무 덩굴로 완전히 뒤덮인 남자의 다리와 그 밑으로 보이는 물 웅덩이

*음악의 최고조로 넘어가기 전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가 이번엔 길게 등장하며 그 소리와 이미지도 더 고조되는 방식이다. (10:50~11:05)*

<insert>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

*음악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물 속 잠수한 남자의 이미지가 등장 (11:05~)*

물속- 어둡고 시퍼런 물 속, 남자의 몸은 위를 향해 있고, 미동이 없는 상태로 하강한다.



물 속 잠수 이미지 예시

숲 속 - 물에 젖어 있는 남자의 얼굴.

숲 속 - 덩굴에 휩싸여 있는 남자의 복부.

<insert>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물 속 - 남자의 몸이 등글게 말려 있으며, 나무의 줄기 하나가 줄처럼 남자의 복부와 이어져 있다. 마치 자궁 속 태아의 모습이다.



## 태아 형상 레퍼런스

숲 속 - 물에 젖은 남자의 얼굴. 카메라에 희미하게 잡힌 목 주변에 나무 덩굴이 보인다.

숲 속 - 클로즈업된 여인의 얼굴 정면. 머리 곁이 조금씩 휘날리고 있으며, 아무 감정도 없는 차가운 표정이다. 이때 카메라가 미묘하게 진동하고 있다.

물 속 - 이전과 동일한 이미지.

숲 속 - 프롤로그와 같은 구도로 달리 인 되고 있는 나무. 여인은 보이지 않으며 뿌리 쪽 기대어 있는 남자는 이제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덩굴로 뒤덮여져 나무와 일체 되어있다.

<insert>

요동치는 물의 이미지와 소리.

프롤로그와 같은 방식으로, 달리 인 되고 있는 나무의 컷 30 초 동안, 인서트컷(물)이 점점 더 빠르게 등장되다가 고조되는 물소리와 음악과 함께 #9 으로 넘어간다.

## #10 엔딩 / 서울 어딘가 / 낮

*음악의 악기 소리가 대부분이 빠지며 조용해지는 아웃트로와 함께 #9 시작. (12:27~)*

바닥과 가까이에 있는 콘크리트 외벽, 배관에서 물이 흘러나와 아스팔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으며, 카메라가 천천히 달리 인 하고 있다.



엔딩 컷 예시

끝나는 음악과 함께 크레딧.